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적 가정영성교육 모형: 비블리오드라마를 중심으로*

최은택(연세대학교/겸임교수)

etchoi0330@gmail.com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독교 가정을 위한 영성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오늘날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많은 변화와 더불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히 대면예배는 물론, 성도들 간의 만남과 접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영성관리를 하면서 기독교적 믿음과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적 가정영성교육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와 코로나19 시대의 특징(언컨택트 문화, 홈 루틴스 현상, 가정 문제의 심화)에 대해 살펴본 뒤, 앞으로의 기독교 영성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독교 영성교육의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독교 가정을 위한 기독교적 가

* 이 논문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춘·하계 통합 온라인 학술대회(2020년 8월 20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정영성교육의 모형을 수립해 보았는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는 비블리오펠라마를 선택하였고, 마태복음 25장 14-30절의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보았다. 이는 웹업, 연기, 성찰의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성서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며, 기독교적 믿음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주제어 》

코로나19, 코로나19 시대, 기독교 영성, 기독교 영성교육, 가정영성교육, 비블리오펠라마.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는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등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속도와 범위 그리고 시스템에 큰 충격과 유례없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Schwab, 2017, 17-19). 이로 인해 생활의 편리함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여기에 얹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발생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부터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로,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는 비말이나 밀접 접촉에 의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빠른 속도의 변이와 전염성으로 인해 팬데믹 (pandemic) 사태로 이어졌다(최재천 외, 2020, 22).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의 규모와 정도는 모든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백신 개발은 물론, 이 사태가 언제 진정되고 종식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공포와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송순재, 2020, 11-12).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 이 시대는 코로나19 시대로 정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구조적 공황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산업적으로는 외식, 관광, 문화 등의 산업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에 변화들 곧 거리두기,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이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신재길, 2020, 9; 임주훈, 2020, 12). 이 외에도 다양한 영역들에 유례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종교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독교는 큰 변화를 겪어야 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등장이다. 이것은 한국 교회 생태에 큰 충격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개신교회의 예배는 주로 대면 현장예배로 진행되어왔지만, 지난 3월 대구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으로 인해 전 지역 교회들의 현장 예배가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다. 최근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앤컴리서치(2020, 33-35)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29일 주일예배 기준,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예배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다고 응답한 교회는 61.1%,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했다고 응답한 교회는 15.6%, 현장 예배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응답한 교회는 8.6%에 불과했다. 그 외에는 가정 예배 혹은 각자 알아서 예배를 드릴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본인의 예배 참석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것에는 출석하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 참석 52.2%, 출석교회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린 경우는 13.6%, 그 외에는 가정 예배 13.2%, 예배를 드리지 않음 13.0%, 기독교TV 예배 3.6% 등 다양한 방식의 예배를 드렸다고 응답했다. 이로 보건대, 상당수의 교회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예배, 특별히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출석자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 혹은 가정 예배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인원이 5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지앤컴리서치, 57). 예배 형식의 변화의 성도들의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형태는 물론, 예배를 비롯한 신앙생활의 형태 또한 진지하게 고민하며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큰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 한국 교회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그 중심에는 ‘기독교 영성교육’의 변화가 있다. 현재 개신교의 침체와 위기를 진단하는 사람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영성의 문제를 들고 있다(이충범, 2008, 36). 그것은 개신교에 영성이 없어서 문제라는 입장, 개신교 영성이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 개신교 영성의 철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등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시대, 특별히 대면이나 접촉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각자 어떻게 영성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적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독교의 유지와 존속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시대를 위한 기독교 영성교육, 특별히 가정을 위한 교육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앞선 통계 결과에서 보았듯이 앞으로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에는 과연 어떠한 방식의 기독교적 가정영성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이것은 위드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기독교 영성교육의 개념과 방향성, 특별히 가정을 위한 영성교육에 대해 살펴본 뒤, 코로나19 시대를 위한 기독교적 가정영성교육의 모형을 수립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시대라는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 영성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기독교적 가정영성교육의 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코로나19 시대의 이해

1.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19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야 한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뒤, 중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까지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 정도로만 알려졌다가,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2월 11일 명명)라고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감염의 확산세가 이어지자, 세계보건기구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세계보건기구는 3월 11일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감염 최고 경고 등급(6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했다. 이것은 초기에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으나,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 내놓은 권고, 곧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제안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불렸다. 그러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는데,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

현재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고, 근육통과 피로감,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드물게 무증상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려면, 적어도 2-3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최재천 외, 32). 물론,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담당 의료진들은 일부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자가면역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증상이 호전된 뒤에도 무증상으로 바이러스가 3~4주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종료됐다고 해도 최소 2주가량 자가 격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항원 다양성이 크고 변이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백신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는 이미 바이러스가 사라져 버렸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백신 개발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도 백신 개발이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그렇다보니 당장에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는 화학백신보다 행동백신과 생태백신이 강조되고 있다(최재천 외, 33). 행동백신이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혹은 생활 속 거리두기’나 손 씻기/손 소독이나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라고 할 수 있고, 생태백신이란, 초기에 코로나19가 야생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인간에게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학백신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코로나19의 변이와 전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화학백신을 기다리는 것 보다는 행동백신과 생태백신을 위한 실천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코로나19 시대의 특징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이것은 코로나

19가 야기한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해보자면,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뉴 노멀’(New Normal)로서 비대면, 곧 ‘언컨택트(Uncontact) 문화’의 확산이다. 언컨택트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단절이나 고립되기 위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기 위하여 선택된 문화로 이해될 수 있다(김용섭, 2020, 7).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이 발표된 후에도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았던 산업현장의 근무 형태, 교육 형태, 소비 형태 등의 큰 변화를 야기했다. 산업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비대면 스마트워크의 시대가 열렸다. 이는 그동안의 비효율적이며 후진적인 노동의 문화를 되돌아보게 했고, 이를 통해 고용과 노동의 정책 재편을 예고했다. 그렇다보니 국가 산업의 활성화 전략의 주요 키워드는 언택트(Untact) 곧 언컨택트가 되고 있고, 현재 재택근무를 원하는 직장인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여러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주 2-4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겠노라 선언하고 있다. 또 교육 현장에서는 장기간의 개학 연기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권혁범, 2020, 29-34).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교육 현장의 변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보니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열리게 되었고, 등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원격 수업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김진숙, 2020, 24-25). 이로 보건대 앞으로의 교육은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 수업 혹은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등의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Schenker, 2020, 42). 뿐만 아니라 소비 형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 소비 문화는 현장 쇼핑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 문화로 바뀌었다(권혁범, 2020, 36).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온택트(Ontact)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홈 루덴스(Home Ludens) 현상’의 확산이다. 여기서 홈 루덴스란, 놀이하는 인간 곧 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외부 활동 보다는 ‘집’(Home)에서 놀이하는 인간을 의미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확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인구가 많은 대도시 혹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장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혼밥, 혼차, 혼게임 등은 물론, 집에서의 여가문화를 즐기고 있다(박남규, 2020, 82). 특별히 이것은 일상생활로부터 취미생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쇼핑, 여행, 레저 등의 소비 형태와 더불어 대인 관계의 변화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집에서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힘겹게 보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Schenker, 2020, 157-158). 이는 교회 생활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교회를 위험 군으로 분류하여 교회활동 참여를 꺼리는 부모 세대의 등장과 더불어 그러한 영향을 받는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의 인구 감소는 물론, 교회학교 감소 속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혜정(2020, 61)에 따르면, 이미 한국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인구 감소세로 접어든 지 오래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사회적 고립과 회피, 부정적 정서와 신앙성숙의 부재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부모는 제1교사이자 주 양육자로서, 부모의 신앙심의 정도가 자녀의 교회 생활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특징과 변화는 교회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가정 문제’의 심화를 들 수 있다. 현대 가정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이미 다양한 문제들을 겪어 왔다. 전통적 형태의 대가족 가정이 핵가족 형태로 바뀌는가 하면, 이혼 가정, 1인 가정, 한부모 가정, 다

문화 가정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들이 증가하고, 가정의 기능이나 역할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부모와 자녀 간 소통 부족과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최정민, 2019, 213; 김도일, 2017, 226).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또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율의 증가, 아동학대, 교육 양극화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의 후베이성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했고, 국내의 경우에도 혼인율 대비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최재천 외, 37; 권승현, 2020). 또 가정 내 돌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으며(이종민, 2020), 온라인 개학의 장기화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교육격차와 양극화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김유림, 2020). 다양한 형태의 가정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시대에는 다양한 변화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는 다양한 변화와 해결책이 요구된다. 비대면 문화를 지향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교회는 기존과 같은 형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또 교회와 가정 간의 거리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가정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정황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고민과 변화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기독교 가정에서의 영성교육도 포함된다.

Ⅲ. 기독교 영성교육과 가정영성교육

1. 기독교 영성교육의 개념과 방향성

그렇다면 기독교 가정에서의 영성교육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 영성교육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성’(spirituality)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우니(2001, 32-38)에 따르면, 이것은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현대 문화가 긍정적인 역사 보다는 부정적인 역사 곧 유대인 대학살, 히로시마 원폭 투하와 같은 사건을 일으켰고, 사람들에게 자기도취, 실용주의, 끝이 없는 불안감 등을 안겨주었던 것으로부터 기인하는데, 현대인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새로운 이해와 존재 방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영성은 기독교는 물론, 다양한 영역들(심리학, 상담학, 과학 등)의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김정준, 2012, 7).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가진 애매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개념적·실천적 혼란과 과잉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이충범, 2019, 159; 조은하, 2003, 343). 예를 들어, 오늘날 영성이란 용어는 경건, 헌신, 완전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고, 또 열정주의, 복음주의, 수도원주의, 성령·은사주의 등과 같은 것으로 설명되는가 하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특정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가치를 실현하는 삶의 동력과 양식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이충범, 2019, 160; 김정준, 2012, 8).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성의 개념, 특별히 기독교 영성의 개념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성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의 학문적 배경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일정한 신학적 준거나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조은하, 2003, 3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 보자면, 먼저,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영성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하여 그 속에서 인간 인격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Downey, 2001, 51). 그 속에 하나님 혹은 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종교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비종교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 영성으로서의 기독교 영성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나마 서술될

수 있다. 통념적으로 기독교 영성은 “전통적으로 계승된 신앙인의 자세, 정신 혹은 가치체계”라고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적 생활양식, 수련법, 통찰, 문화, 상징체계 등을 의미한다(류삼준, 2016, 86). 어원적으로 기독교 영성이라는 개념은 초대교회의 문헌에 나타난 라틴어 ‘스피리츄알리티스’(spiritualitas)로부터 기인하는데, 이것은 성서의 ‘영’(spirit)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Perrin, 2007, 27). 성서에서의 영 개념은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루아흐(ruach)와 신약성서의 헬라어 프뉴마(pneuma)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호흡’ 혹은 ‘바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루아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인간의 생명의 연장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프뉴마는 하나님과 예수의 영,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가능케 하는 성령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도일, 2010, 4). 이를 기반으로 기독교 영성의 개념을 정의해 보자면, “개인과 신앙공동체가 성서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기독교적 생명을 연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초월하여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서 세상 또는 타 존재와의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려는 실존적이면서도 통전적인 본성 혹은 그 구체적인 존재양식(삶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김도일, 2010, 6; 류삼준, 2016, 88; 조은하, 2003, 345).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기독교 영성의 특성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영성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비종교적 영성이나 타종교 영성과는 달리, 기독교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독교 영성은 성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성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영성에서 ‘영’이라는 개념은 성서에 기초해 있고, 또 성서는 루아흐와 프뉴마 외에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제공함으로써 기독교 영성의 개념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는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김도일·장신근, 2009, 77-83). 셋째, 기독교 영성은 ‘개인적’임과 동시에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개인과 신앙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초월 및 변화를 체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 곧 하나님의 창조세계로 나아가 타 존재와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구체적인 존재 양식으로서 기독교적 삶과 실천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물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온 기독교 영성의 개념을 단순하게 정의내리고 세 가지 특성으로 다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간결하게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 시대 기독교 영성교육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영성교육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성은 지식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영성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영성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영성교육(education for spirituality)이라는 용어보다는 '영성훈련'(spiritual training/exercise)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해 왔다(김도일, 2010, 8-9). 하지만 '교육'과 '훈련'이라는 두 가지 용어의 특성을 기반으로 생각해 볼 때, 훈련보다는 교육이 보다 폭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훈련은 기본적으로 교사를 중심으로 훈련 대상에 있어 계발되어야 하는 능력의 양태 혹은 실현되어야 할 결과가 어느 정도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교육은 학습자들의 본질적·발달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의 타고난 다양한 잠재력을 끄집어내기(라틴어, educare) 위하여 교사와 학습자 간 지속적 도움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강희천, 1999, 244-245; 김도일, 2010, 9). 본 연구는 영성훈련 보다는 영성교육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할 때, 영성지도를 보다 폭 넓게 할 수 있고, 또 학습자 중심의 참여와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 기독교 영성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그 방향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그동안의 기독교 영성교육은 주로 영성훈련의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유념적(kataphatic) 형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념적(apophatic) 형태이다. 유념적 영성훈련은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활동

을 그려보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이미지, 상징, 감각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말하고, 무념적 영성훈련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수동적 특징을 지닌 방법을 말한다(김도일·장신근, 2009, 207; 박미경, 2013, 5). 이를 기반으로 오늘날에는 금식, 기도, 침묵, 묵상, 성서읽기, 영적독서, 영성일기 등이 일반적인 영성훈련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유재경, 2017, 341). 또 이것은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 외에도 세례, 성찬식, 예배 등의 교육과 훈련으로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최봉도, 2012, 379).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영성훈련’보다는 ‘영성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보다 폭 넓은 교육과 더불어 학습자들의 참여와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시대는 대면 만남과 접촉의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과 동시에 성도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어서 교회보다는 가정에서의 영성관리 및 생활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앞서 다룬 기독교 영성교육의 정의와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기반을 둔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성서에 기반을 두며, 개인적 측면을 넘어 공동체적이면서 사회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것이 단순히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경험이 강조되면서 영과 육을 분리하여 이분법적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정신과 육체의 ‘통전성’을 지향해야 하며, 성서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일상에서의 초월적 삶을 추구하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의 격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류삼준, 2016, 94-98). 이를 위해서 학습자에게는 탈인습적 자아정체감, 곧 관계성

(relationality), 개방성(openness), 평등성(equality)이 요구된다(김현숙, 2012, 27). 그래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열린 마음으로 성서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나와 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평등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는 기독교적 가정영성교육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2. 기독교 가정을 위한 영성교육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 기독교 가정을 위한 영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먼저, '신학적'으로 가정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동시에 중요한 장이기 때문이다. 성서는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요한 터전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최정민, 2019, 208). 성서에 따르면, 가정에서 부모는 교사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또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신 6:4-9; 잠 1:8; 14:26; 시 78). 그렇다보니 구약시대는 물론, 신약시대에도 가정은 신앙교육의 중심이 되었고, 회당 혹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방식의 교육(성서, 상징물, 절기행사, 종교의례 등)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수 많은 이단과 이교도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최정민, 2019, 209). 물론, 당시에는 가정 이외의 뚜렷한 교육기관이 발전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이 원래 인간의 발달과 성장, 특별히 신앙의 형성도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오인탁, 2009, 21).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오늘날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화 이후, 분업화 현상에 따라 종교적 기능은 종교 기관에, 교육은 학교에 넘겨주는 등 가정의 기능을 전문기관에 맡기게 되면서 교회

와 가정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다(이정관, 2011, 296). 그렇다보니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기능, 특별히 기독교 영성교육은 약화되었고, 교육의 책임은 부모로부터 교회로 전가되었다. 물론, 일부 가정에서는 가정예배의 형태로 기독교 영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통계에서 보았듯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정예배를 드린 경우가 13.2%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교회의 인구 감소 및 교회학교 감소율에 비추어 보자면, 그 효과와 참여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교회와 가정의 교육의 분리 현상과 신앙생활의 침체현상을 막기 위하여 부모들을 가정에서의 올바른 기독교교육자로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박상진, 2009, 72).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오늘날 여러 가정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혼율의 증가,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부부 간, 부모와 자녀 간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소통과 이해의 부족 등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는데, 그만큼 오늘날에는 가정 보호의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정관, 2011, 296). 바쁜 현대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일하는 곳이나 활동하는 곳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남을 갖고 대화하며 교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재택근무, 온라인 개학 등으로 가정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그 안에서 여러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가정교육이 다시 강조되어야 하고,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통하여 가정에서의 영성교육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상진(2009, 72)은 가정, 교회, 학교를 연계하는 통전적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가정-교회, 교회-학교, 학교-가정이 연계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가정-교회의 연계 교육방안들(교회의 부모교육,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교재 개발,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의 만남, 부모 자녀교육 상담, 교회학교의 가정 심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수련회와 캠프 등을 통하여 가족경험과 가족 간 상호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최정민, 2019, 222).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가정의 충돌과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정은 여가문화의 주요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홈 루텐스 현상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 가정에서 신앙의 놀이 혹은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손원영(2004, 20-24)은 “생활영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신앙인의 갈망”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정에서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식사기도, 대화, 설거지 등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영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영성교육으로서 새로운 일상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기독교 영성은 ‘성서’와 성서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두기 때문에 성서를 가지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로서 기독교 영성교육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대화는 물론,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성서는 객관적인 방식의 관조나 중립적인 입장의 무미건조한 독서방식으로는 가치를 온전히 수용할 수 없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읽기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조성호, 2018, 286). 물론, 이 과정에서 성서를 문자주의적인 시각으로 대하거나 근본주의적인 맹종을 요구하는 시각을 경계함과 동시에 성서를 도구적 기능으로 축소하여 인간의 만족을 성취하는 통로로 경시하는 풍조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조성호, 2018, 287). 그리할 때, 성서를 통해 기독교적 궁극적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적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독교 영성은 정신과 육체의 ‘통전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 성서읽기 방식인 성경통독, 곧

정신적 영역이 강조는 읽기 방식보다는 육체적 영역도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수행성’(performativity)이 필요하다. 이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제기되고 있는 ‘기술 영지주의’, 곧 정신업로드 기술을 통해 인간의 육체보다는 정신을 중요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Moravec, 1988, 116-124; Milbank·Zizek & Davis, 2010, 192).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방법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로 ‘비블리오드라마’(Bibliodrama)를 제시할 수 있다. 비블리오드라마란, 성서를 뜻하는 ‘biblion’과 ‘drama’의 합성어로, 성서와 독자의 경험을 연결하고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돕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기도와 명상, 해석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서의 내용과 맥락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Martin, 2010, 189). 이는 1970년대부터 기존의 전통적 성서 읽기와 경건 훈련의 한계를 접하게 된 이후, 창조적 역량 강화와 목회적 돌봄의 새로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Martin, 2010, 190-191). 뿐만 아니라 이것은 수행적 영역에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차원에서 보다 참여적이고, 창의적이며, 상황적이고, 사회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Lim Sung Uk, 2018, 1). 고원석(2019, 20)에 따르면, 비블리오드라마는 성서를 가르치는 방법이나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특별한 도구로서, 성서학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별히 이것은 학습자들이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연기하는 역할극 형식의 성서학습 모델로서, 기존 성서 연구의 한계였던 3인칭 시점에서 벗어나 2인칭 시점, 곧 성서와 학습자(독자)의 관계를 나와 너(I to Thou)의 관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며, 놀이(play)적 요소를 통해 참가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고, 도출되는 결과 그 자체 보다는 공동체학습 가운데 일어나는 역동적인 체험을 중요시 한다고(고원석, 21-22; Krondorfer, 2008, 81). 물론,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교회에서 교회학교나 수련회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Krondorfer, 2010, 4).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학계에서 논의된 지는 십여 년 밖에 되지 않았고, 심리치료 및 상담학 분야나 기독교교육학 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소개되어 점차 다양한 현장에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고원석, 2020, 102).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위한 교육방법으로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독교 영성교육의 방법으로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요구되는 기독교적 가정영성교육의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IV. 비블리오드라마를 활용한 기독교적 가정영성교육 모형

1. 비블리오드라마의 근본성격과 진행방법

비블리오드라마를 활용한 기독교적 가정영성교육 모형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비블리오드라마의 근본적인 성격과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비블리오드라마는 세 가지의 근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원석, 2019, 122-126). 그것은 각각 (1) 신체성: 창의성과 자발성, (2) 상호작용, (3) 성서의 빈공간: 느낌의 미학이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이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성을 구현하게 하고(신체성), 성서(텍스트)와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하며, 성서의 내용을 천천히 읽게 함으로써 성서에 대한 표면적 이해를 넘어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각각 교육의 행위자, 교육의 방식, 교육의 내용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성서(빈공간)-극(극적 방식)-참여자(신체성)”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진다(고원석, 126).

그런가 하면, 비블리오드라마의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것은 각각 (1) 워업, (2) 연기, (3) 성찰이다. 워업(warm-up)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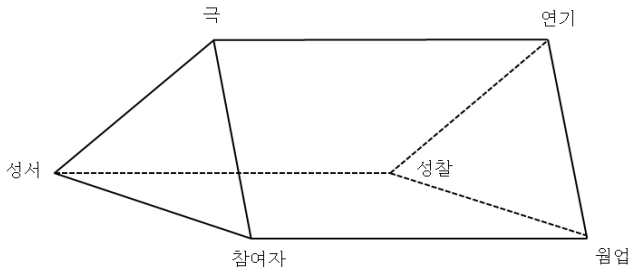
학습자들을 관객에서 참여집단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으로서, 인도자(디렉터)가 학습규칙을 설명해 주고,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자발적인 참여를 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과정이다. 여기서 인도자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비블리오프라마의 취지와 진행을 잘 이해하고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고, 간단한 공동체 활동이나 놀이 혹은 스트레칭, 심호흡, 소리치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앞으로 진행될 학습과 관련한 활동이면 학습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간의 교제, 협력, 신뢰 등을 쌓을 수 있다(고원석, 2020, 22; Krondorfer, 2008, 358-360).

연기는 일반적인 연극처럼 미리 준비된 동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성서의 배경과 인물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거나 몸짓을 해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도자는 참여자들의 연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고, 연기자는 물론, 연기자 외의 참여자들은 연기의 과정을 성서 해석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인도자가 성서의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이에 맞게 장면(plot)을 구성하여 연기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연기자는 말하기, 독백, 몸짓, 춤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즉흥적인 대사와 감정 등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원석, 2020, 22-24; Krondorfer, 2008, 360-364).

성찰은 연기가 끝난 뒤에 비블리오프라마를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이 맡았던 역할로부터 벗어나 각자 연기 과정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참여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인도자는 이러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눔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참여자들은 연기에 참여하거나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느낀 점이나 생각 등을 나눌 수 있다. 이때, 전통적 방식으로 성서를 다시 읽으면서 연기의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본문의 의미를 고찰할 수 있어야 하고, 본문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달라진 생각, 다양하고도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성서와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인 해석자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나눔의 과정을 통해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경험적 한계가 보완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 간주관적(intersubjektiv)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원석, 2020, 24-25; Krondorfer, 2008, 365-370). 이를 기반으로 개인은 앞으로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어떠한 구체적 실천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나누고, 실천함으로서 기독교 영성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비블리오드라마는 다음과 같이 삼각기동으로 도식화해볼 수 있다.



[그림 1] 비블리오드라마의 삼중구조와 진행방법

참가자들은 이러한 구조의 이해와 참여를 기반으로 기독교 영성교육의 주체로 참여하고, 또 기독교 영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2. 비블리오드라마를 활용한 기독교적 가정영성교육의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비블리오드라마를 활용한 기독교적 가정교육의 구체적인 모형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시대에는 비대면 문화의 영향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보다는 일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14-30절을 가지고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간략하게나마 소개하자면, 먼저, 이 본문은 ‘달란트 비유’로 알려져 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4-25장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와 ‘종말’에 대해 소개하는 5개의 비유들(무화과나무의 비유, 신실한 종의 비유,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사이에 있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것인지 보여주는 비유이다(Jeremias, 1972, 57; Nollan, 2005, 1020; Schottroff, 2006, 223-224). 또 이 비유의 등장인물은 총 4명인데, 각각 한 명의 주인과 세 명의 종들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크게 6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면1) 한 주인이 세 명의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각각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14-15절). (장면2)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장사를 하여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서 감추어 두었다(16-18절). (장면3) 오랜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였다(19절). (장면4)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다섯 달란트를 더 가져다주었고, 주인은 그를 칭찬했다(20-21절). (장면5)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주인에게 두 달란트를 더 가져가주었고, 주인은 역시 그를 칭찬했다(22-23절). (장면6)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다주었는데, 주인은 그를 책망하면서 그의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았다(24-30절). 이러한 흐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비블리오드라마를 구성해 볼 수 있다.

1) 워업

이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워업은 ‘맡아주기’이다.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 각자에게 소중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게 하고, 또 한 사람이 그 물건을 맡기고 떠났는데, 그것을 제대로 맡아주지 않으면 어떤 기분일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먼저, 인도자는 참가자인 가족 구성원들에게 각자에게 소중한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거나 생각해 보라고

한다. 이때, 종이에 써서 그 물건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1-2분간 자리를 비우게 한다. 물건을 맡긴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물건을 맡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맡아줄 것인지 고민을 하면 되는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하여 생각하면 된다. 물건을 맡긴 사람이 돌아오면, 물건을 맡은 사람은 자신이 맡아준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돌려주면 되는데, 그때, 물건을 맡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인도자는 가족 구성원 수와 시간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느꼈을 감정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2) 연기

이제 뒀업을 마쳤다면, 연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인도자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적절하게 역할을 분배할 수 있다. 이때, 가위바위보, 제비뽑기, 사다리 게임 등으로 역할을 분배할 수 있다. 역할이 분배되었다면,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의 등장인물, 6개의 장면들을 차례로 소개하며, 참가자들이 맡은 바 연기를 진행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이때,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이야기의 배경과 흐름, 각각의 장면을 고려하여 연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이야기의 구성상 총 15달란트가 필요하므로, 달란트를 상징하는 15개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 인도자는 연기자들에게 말하기, 독백, 몸짓, 노래, 춤 등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야 있다. (장면1)을 가지고 간략하게나마 연기의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인도자: (간략한 장면 해설) 어느 날, 한 주인이 세 명의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각각 금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인: 애들이, 잠깐 다 이리 좀 와 보거라. 내가 갑작스럽게 중요한 일이 생겨 멀리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내 재산을 다 들고 갈 수 없으니 너희들에게 좀 맡기고 다녀와야겠구나. (종1을 가리키며) 너는 평소 부지런하고 감각이 뛰어나 전체적인 집안 살림이며 가족 관리를 누구보다 잘 해왔었지? 그러니 큰 돈도 잘 맡아 주리라 믿는다. (5달란트를 건네준다)

종 1: (기뻐하면서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주인님의 재산과 집은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주 인: (종2를 가리키며) 너는 평소 성실하게 일하며, 주어진 일에 맡은 바 최선을 다했지? 그러니 너에게 2달란트를 맡기겠다. (2달란트를 건네준다)

종 2: (기뻐하면서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주 인: (종3을 가리키며) 너는 평소 특유의 재능으로 집안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지? 너에게도 1달란트를 맡기고 가겠다. (1달란트를 건네준다)

종 3: (기뻐하면서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저만 믿고 잘 다녀오세요.

주 인: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 든든하구나. 그럼 나는 이만 다녀올테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맡긴 것을 잘 지키고 있거라. (자리를 떠난다)

이런 식으로 인도자의 간략한 장면 소개와 해설에 따라 참가자들이 연기를 하면 되는데, 즉흥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대사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한 장면이 끝나면 다시 인도자가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되는데, 지루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시간 분배를 하여 전체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성찰

모든 장면의 연기를 마쳤다면, 이제 인도자는 가족들에게 각자 연기 과

정에서 혹은 참여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돌아가면서 나누게 할 수 있다. 이때, 마음을 정돈하고 발전적인 대화들이 나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잔잔한 음악이나 조명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들은 주인과 종들의 심정, 그리고 종들의 태도와 결과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다함께 마태복음 25장 14-30절의 본문을 읽고, 연기 과정을 떠올리며, 주인으로 묘사되는 하나님과 종으로 묘사되는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 나눌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재산을 증식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 번째 종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주인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세 번째 종의 재산 관리 방법 곧 땅에 묻어둔 행위가 재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 장사를 했던 다른 종들보다 더 모험적이지 않고 안전했다는 등의 해석이다. 실제로 플라린(2008)의 경우에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거부하고 전복적 해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의한 지배체제에 맞서 비폭력적으로 저항한 세 번째 종이 의롭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인 해석의 주체가 되게 하고, 성서에 대한 흥미는 물론, 성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성서 왜곡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그것은 나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간주관적 해석과 목회자와의 소통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V. 나가는 말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비블리오드라마를 활용한 기독교적 가정영성교육의 모형을 제시해보았다. 이 연구는 오늘날 급격한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에 한국교회는 기독교 신앙과 공동체의 유지 및 존속을 위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코로나19 시대의 특징에 대해 살펴 보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요구되는 기독교 영성과 기독교 영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중 하나로는 가정을 위한 기독교 영성교육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비블리오편극을 활용한 기독교 영성교육의 구체적인 모형을 수립해 보았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독교교육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교육학 분야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기독교교육의 현장을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본 연구가 그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짧은 소고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와 추가 과제 또한 지니고 있다. 첫째, 효과적인 가정 영성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비블리오편극을 활용한 기독교 영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제별, 인물별, 절기별 등 교재는 물론, 가정예배서를 대체할 교재 개발이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의 실제적 적용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가정은 1인 가정,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추가적인 기독교 영성교육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비블리오편극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당장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고민과 연구, 실천들이 계속된다면 긍정적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희천 (1999).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고원석 (2020). 비블리오드라마의 개념, 선구자들, 그리고 근본 성격. **기독교교육논총**, 62, 101-133.
- 고원석 (2019). 새로운 성경학습 방법론: 비블리오드라마. **교육교회**, 482, 19-25.
- 권승현 (2020.6.24). 코로나19로 4월 결혼 '역대 최저' 기록...이혼은 늘었다.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6241008452605>에서 인출.
- 권혁범 (2020). 코로나19 뉴노멀(New Normal)' 시대. **부산발전포럼**, 28-37.
- 김도일 (2017). 가정, 교회, 마을의 생명망 조성을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선교와 신학**, 41, 223-248.
- 김도일 (2010).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는 기독교 영성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2, 1-21.
- 김도일·장신근 (2009). **기독교 영성교육**. 서울: 동연.
- 김용섭 (2020). **Uncontact**. 서울: 퍼블리온.
- 김유림 (2020.07.22). 원격수업으로 중위권 사라진 '교육 양극화'. **주간동아**. <https://weekly.donga.com/3/all/11/2127216/1>에서 2020.07.26. 인출.
- 김정준 (2012). 기독교 영성교육 모델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67, 7-41.
- 김진숙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요해진 역량, '디지털 시민성.' **월간 공동정책**, 176, 22-25.
- 김현숙 (2012). **탈인습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류삼준 (2016). 기독교 영성교육에 있어서 교수-학습과정의 원리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50, 81-117.
- 박남규 (2020). 코로나19 시대,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기회. **활천**, 800, 80-85.
- 박미경 (2013). 개신교 영성훈련의 현재와 미래. **종교교육학연구**, 43, 1-24.
- 박상진 (2009). 한국 교회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독교교육논총**, 20, 53-83.
- 손원영 (2004). **영성과 교육**. 서울: 한들출판사.
- 송순재 (2020). 새해맞이와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과 인식**, 44, 11-14.
- 신재길 (2020). 코로나발 세계 대공황. **정세와 노동**, 161, 9-23.
- 오인탁 (2009). **기독교교육사**. 서울: 기독교.
- 유재경 (2017). 기독교 영성형성의 관점에서 본 영성일기. **신학과 실천**, 57, 321-347.
- 이종민 (2020.04.07). 집에만 머물자 아동학대 노출... 학교 못 가 도움도 못 청해.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407520064>에서 2020.07.26. 인출.

- 이정관 (2011). 현대 가정의 변화가 가정에서의 청소년 기독교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안. **신학과 실천**, 27, 281-308.
- 이충범 (2008). 개신교 영성의 현주소와 여성생태주의 영성. **기독교철학**, 10, 35-64.
- 임주훈 (202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숲. **숲과 문화**, 29, 11-14.
- 조은하 (2003). 현대적 의미의 기독교 영성교육. **기독교교육정보**, 7, 341-361.
- 조혜정 (2020). 코로나19 시대에 기독교 학부모의 신앙성숙이 사회 회피 및 불안(SAD)에 미치는 영향과 기독교교육적 함의. **기독교교육정보**, 65, 57-85.
- 지앤리서치 (2020).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 **감리회미래포럼 강의자료집**, 1, 26-78.
- 최봉도 (2012).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영성과 기독교 영성교육. **신학과 실천**, 31, 363-383.
- 최정민 (2019). 기독교 가정교육의 과제와 전망. **장신논단**, 51, 205-226.
- 최재천 외 (2020). **코로나 사회언스**. 서울: 인플루엔셜.
- Downey, M. (2001). **오늘의 기독교 영성 이해**. 안성근 역. 서울: 은성. (원저 1997 출판)
- Folarin, G. O. (2008). The parable of the talents in the african context: an inculturation hermeneutics approach. *Asia Journal of Theology*, 22, 94-106.
- Jeremias, J. (1972). *The Parables of Jesus*. London: SCM Press.
- Krondorfer, B. (편) (2010). **비블리오드라마**. 황헌영·김세준 역. 서울: 창지사. (원저 1992 출판)
- Krondorfer, B. (2008). Serious play: Bibliodrama in the context of creative incarnation.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1, 81-91.
- Martin, G. M. (2010). 비블리오드라마의 기원과 성경본문. 안: Krondorfer, J. (편). **비블리오드라마**. 황헌영, 김세준 역. 서울: 창지사, 187-215. (원저 1992 출판).
- Milbank, J. & Zizek, S. & Davis, C. (2010). *Paul's new moment: Continental philosophy and the future of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Brazos Press.
- Moravec, H. (1988). *Mind children: The future of fobot and human intellig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olland, J. (2005). *The gospel of matthew: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 Perrin, D. B. (2007). *Studying Christian spirituality*. New York: Routledge.
- PMG지식엔진연구소. (2020.08.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12275&cid=43667&categoryId>

=43667에서 2020.08.16. 인출.

Schenker, J. (2020). **코로나 이후의 세계**. 박성현 역. 서울: 미디어숲. (원저 2020 출판)

Schottroff, L. (2006). *The parables of Jesus*. Minneapolis: Fortress Press.

Schwab, K. (편) (2017). **4차 산업혁명의 충격**. 김진희, 손용수, 최시영 역. 서울: 흐름출판. (원저 2016 출판).

Schwab, K. (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 현재. (원저 2016 출판)

Sung Uk, L. (2018). Performing the bible in the korean context: Korean ways of reading, singing, and dramatizing the scriptures. *Religions*, 268, 1-10.

Abstract

A Study of the Model Christian Familial-Spiritual Education for The Era of Covid-19

Eun Taek Choi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s a spiritual education for the Christian family as a strategy to cope with the risky situation of the Korean Churc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oday, we live in a chaotic epoch since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science caus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gave rise to a wide array of changes throughout the society. Korean Church in these circumstances is required to have relevant responses to the kaleidoscopic changes. Especially, not to mention the face-to-face public worship service, in the situation where the congregation members even find it difficult to meet one another in a small group, it becomes a crucial issue how Christians maintain their faith and community in the healthy spirituality. As such, viewing that Christian education within the family will become much more important, this study conducts research for familial-spiritual education.

For the research, this paper, first of all, attempts to understand the era of Covid-19. It is to see what the Novel Corona Virus is and what the feature of the epoch of Covid-19 might be. Based upon the understanding, this research discusses what Christian spirituality is asked for and the orientation towards which Christian education should go on. It is particularly to say that a spiritual education for the family becomes integral. The education for the family might be possible through Bibliodrama so that this study establishes a specific model of Christian education employing Bibliodrama.

The discussion above shows three academic significances. First, this paper, within the domain of Christian education, suggests an alternative research which is to solve Korean Church's diverse problems caused by Covid-19. Second, this research attempts an analytical understanding of the Covid-19 period within the Christian education area. Finally, when specific and practical research for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s required, this study considers that Christian education within the family is overarching, thus proposing a specific model for familial-spiritual education hiring Bibliodrama.

《 **Keywords** 》

Covid-19, The era of Covid-19, Christian spirituality, Christian spiritual education, Familial-spiritual education, Bibliodrama.

- 투고접수일 : 2020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29일